

1.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교회는 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들이고 또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신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고백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일종의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니까? 사도신경의 앞부분을 한 번 암송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의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세기 1:1절을 적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0절을 적어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또는 ‘베일을 벗긴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뜻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신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자연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 사계절의 변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질서를 잃거나 정하여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멸망하고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단 한 번도 이런 질서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이나 이적같은 것이 특별계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시의 결정판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산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성경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일종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게 될 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가 가장 앞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중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선언적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신 하

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5,6절을 적어봅시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차원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노아시대에 죄를 짓고 자기들 뜻대로 살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구원을 받은 노아, 죄악 된 일을 일삼다가 멸망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롯 등, 성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2. 전능하신 분

창세기 17:1절을 써 봅시다.

창세기 17: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써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엘샤다이)

구약성경에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주로 여호와(야훼)와 엘로힘이 사용되는데 이 외에도 엘 샤다이, 엘 엘리온, 엘 로이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엘 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샤다이’라는 말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문법학자들은 주로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을 뜻하는 ‘샤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엘 샤다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이십니다.

출애굽기 6:3절을 써 봅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운행되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아무리 큰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조차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삶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하나님은 크시도다)에게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앞으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래(여주인)은 사라(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17:17,18절을 적어 봅시다.

창세기 18:13,14절을 적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7:19, 21절을 적어 봅시다.

창세기 18:14절을 적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창12장)’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크게 떨치게)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특히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는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하갈이라는 하인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부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사람이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바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도우심은 시작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마가5:25-34)이 그 질병으로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고생만 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고침을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8,9절을 적어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 나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2:7절을 적어 봅시다.

이사야 44:2절을 적어 봅시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은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우연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실수로 자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4절을 적어 봅시다.

시편 139:1-4절을 적어 봅시다.

사람은 자신이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낱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지으신 분이며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3,4절을 적어 봅시다.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을 영원히 보살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백발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사야40:28)’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